

김윤진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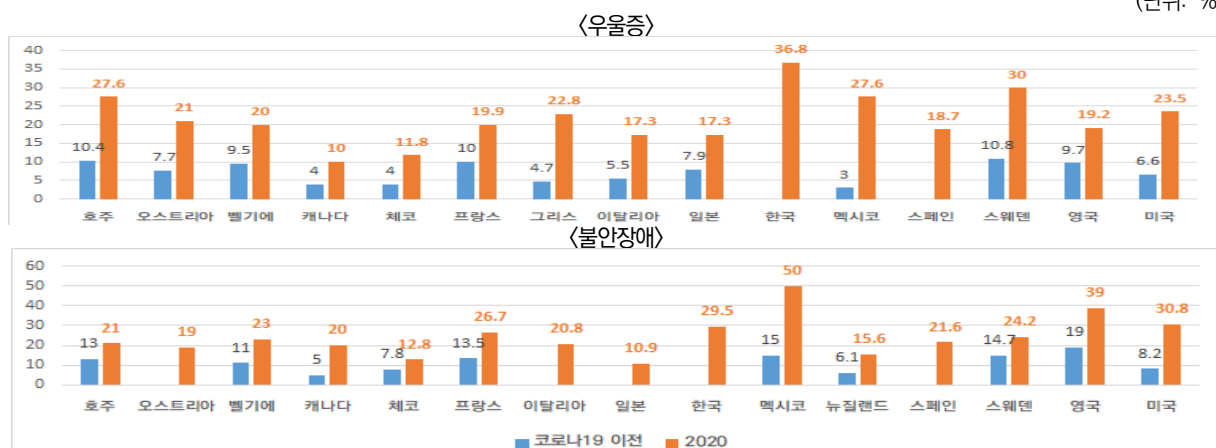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각국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정신질환 위험 보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정신질환 관련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가 전 세계에서 심화되고 있음¹⁾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 위험, 실업,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일부 국가의 2020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유병률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지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2020년도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을 보임(〈그림 1〉 참조)
 - 각 국가의 유병률 조사방법과 기간이 상이하여 국가별 유병률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2020년 유병률은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3~4월)를 기준으로 한 국가별 추정치임
-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이번 OECD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국가별 정신질환 유병률 통계를 객관적 정보로 취합·보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1〉 우울증·불안장애 유병률 국가별 통계

(단위: %)



자료: OECD(2021.5)

1) OECD(2021. 5), "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An integrated, whole-of-society response"

○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관리의 실패는 노동생산성 감소, 치료비 지출 확대와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글로벌 생산성 손실 비용은 연간 약 1조 달러(한화 약 1,100조 원)에 달함²⁾
- 영국왕립정신의학회(Royal College of Psychiatrists)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신질환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세계 2차 대전 이래 인류 정신건강상 최대위협이 될 것이며, 코로나19가 통제되더라도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설명함³⁾
- 바르셀로나 글로벌보건연구소(ISGlobal)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트라우마로 유발된 정신질환의 영향은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된 후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하며,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시급함을 강조함⁴⁾

○ 이에 각국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신질환 관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고, 주요 국제기구는 보험 보장체계를 통한 정신질환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함

- 우리나라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까지 예산 2조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 문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할 예정임⁵⁾
- 영국 정부는 'Mental Health Recovery Action Plan'에서 2022년까지 국민보건서비스(NHS) 내 우울증·불안장애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및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의료관리 제공 등 다양한 정신질환 관리 계획을 발표함⁶⁾
- UN은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전 사회적(a whole-of-society) 공동대응·지원을 권고하며,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혜택 및 건강보험을 통한 정신질환 위험보장이 필수적임을 언급함⁷⁾

○ 정신질환 위험보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정신질환 관련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의 보장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⁸⁾

-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질환 진료 및 보장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 정신질환 보험체계의 부족한 보장범위 및 낮은 접근성에 따른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⁹⁾
 - 최근 주요국에서 보험가입 신청자가 경증 정신질환과 같은 가벼운 병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사가 정신질환 치료 보험금을 미지급(과소지급)하는 등 정신질환 위험보장에 소극적인 사례들이 보고됨
- 보험회사는 이러한 정신질환 위험보장공백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정신질환 보장체계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The Lancet Global Health(2020. 11), "Mental health matters"

3) The Guardian(2020. 12), "Covid poses 'great threat to mental health since second world war'"

4) ISGlobal(2021. 3), "Will we see a wave of mental health problems after the COVID-19 pandemic?"

5) 보건복지부(2021.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6) GOV UK(2021. 3), "Mental health recovery plan backed by £500 million"

7) UN(2020. 5), "Policy brief: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

8) Swiss Re(2021. 1), "Mental health in Japan: An opportunity for insurance to help close the protection gap"; Swiss Re(2021. 3), "Mental health in South Korea: An evolving market offers long-term promise for insurers"

9) NAMI(2020. 3), "Health insurers still don't adequately cover mental health treatment"; ABC News(2021. 2), "Mental health insurance problems to be exacerbated by Covid-19"; 동아일보(2021. 6), "입시, 취직, 보험 때문에 정신과 안 간다고요?"